

1998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기획 초안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일시 : 1998년 2월 18일 늦은 2시 - 4시

장소 : 신상대 강당(미정)

Yonsei University? Yonsei Men's University?

우리는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 남녀공학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라는 남녀공학은 '양성'이 함께 다닌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無性的'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Yonsei University - 분명 이 곳은 남성만의 공간도 아니고 또한 여성만의 공간도 아니다. 남녀공학이라는 곳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남녀 간 아무런 차별이 없는 무성적 공간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성별 간의 역학이 존재하는 공간이지 않은가?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남녀공학이라는 덫을 걷어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남녀공학에 다니게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학업 능력을堂堂하게 인정받았음으로,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장애를 느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IMF이니 학부제이니, 요즘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대학 - 과연 여성에게 동등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가? 경제 위기 속에서, 실용성을 앞세우는 학부제 속에서, 우리는 '공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차별에 대해 눈감고 있는 그러한 공존이 아닌, 남성 중심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의 공존, 남성이 여성의 경쟁 상대가 아닌 공존,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의 공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각본을 좇아가지 않고, 다른 가능성들을 타진해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문화제의 즐거움 - 그것은 단지 시각적인 화려함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짜여진 각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사의 좌담회와 문화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남녀공학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여성임을 즐겨워하면서 진정한 남녀 공존의 길의 시작일 것이다!!

◆프로그램

1부 : 남녀공학....공존에 대한 다른 시각

영상물 - 남녀공학에 관한 여학생처 제작 비디오 편집 + 추가 촬영

좌담회 - 김현미 선생님 (여성학, 문화인류학 강사)

학부생 몇 명, ^{4명}

2부 : 멋진 ^{4명}女^{4명}들

시작 공연 - 여성 사물놀이꾼들 공연 (연세대 문과대 풍물패 '한울'에서 섭외)

게스트 - 이상은, 황보령

'피날레' - 여성 춤꾼들 공연 (연세대 춤 동아리 '하리'에서 섭외)

.자금:각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여 참여하는 단위들이 나누어 낸다.

2. 활동

-대외활동

1997년3월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96년 여름 연세대 사태때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하고 국회에서 추미애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미애의원, 이 사건을 담당한 이종걸 변호사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관악여성모임연대에서 각각 패널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1997년 4월 연세대 사태 中 일어난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선전전에 그쳤다.

1997년 5월14일 '여성운동의 효율적 체계논쟁 토론회'

대학 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들꽃모임과 기존의 전국여학생 대표자 회의 회 산하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 협의회 간의 여성운동에 관한 토론. 여성연대회의가 공식성을 띄게 되면서 기존에 함께 활동하던 단위²⁾들이 아닌 새로운 단위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견해를 조율할 필요성에서 열렸다.

1997년 5월 '연대 사태' 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활동하던 단위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성폭력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여성연대회의'라는 연대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

1997년 5월 대학내 성폭력에 관한 집회, 자료집 발간

1997년 7월 학생대회에서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에 대한 홍보.

서울지역 대학에만 머물러 있던 학칙개정 논의를 다른 지역 대학에도 확산시키는데 기여.

1997년 8월 청년학생한마당

1997년 10월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집 발간.

성폭력 학칙제정의 필요성과 여성연대회의를 홍보

1997년 10월 대선토론회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에 관해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학칙제정에 관한 구체적 노력

여대와 남녀공학으로 나누어 학칙 가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학칙이 이미 마련된 동아대, 가안을 자체적으로 만든 서울대, 시립대의 학칙안을 기초로 논의.

외국학칙 번역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학칙연구 팀은 꾸려지지 않고 있다.

3.전망

한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³⁾ 각 학교마다 새 학칙안을 만드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연대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동 성폭력 학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가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지속적인 홍보작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공동학칙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가(가능한 전국의 모든 대학) 동시에 상정함으로써 성폭력학칙개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단위들과의 연대가 가능하고 이것은 여성담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여성운동 기반이 취약한 학교에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이란 사안으로 형성된 전국적인 연대망은 앞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들꽃모임사람들.

3) 먼저 학교측에 상정을 해야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약10여단계의 절차가 있다.